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빠꾸기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빠꾸기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빠꾸기

완성된 이름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빠꾸기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두견과의 새. 두견과 비슷한데 훨씬 커서 몸의 길이는 33cm, 편 날개의 길이는 20~22cm이며, 등 쪽과 먹은...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백국이	-	-	-	-
빠꾸기	-	-	-	-
백국이	-	-	-	-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두견과의 새. 두견과 비슷한데 훨씬 커서 몸의 길이는 33cm, 편 날개의 길이는 20~22cm이며, 등 쪽과 먹은 잿빛을 띤 청색, 배 쪽은 흰 바탕에 어두운 적색의 촘촘한 가로줄 무늬가 있다. 때까치, 지빠귀 따위의 둥지에 알을 낳아 까게 한다. 초여름에 남쪽에서...

🕒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 수록 용례

11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빠꾸기'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두견과의 새. 두견과 비슷한데 훨씬 커서 몸의 길이는 33cm, 편 날개의 길이는 20~22cm이며, 등 쪽과 먹은 잿빛을 띤 청색, 배 쪽은 흰 바탕에 어두운 적색의 촘촘한 가로줄 무늬가 있다. 때까치, 지빠귀 따위의 둥지에 알을 낳아 까게 한다. 초여름에 남쪽에서 날아오는 여름새로 ‘빠꾹빠꾹’ 하고 구슬프게 운다. 산이나 숲속에 사는데 유럽과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아열대에서 북극까지 번식하고 겨울에는 아프리카 남부와 동남아시아로 남하하여 겨울을 보낸다.



빠꾸기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빠꾸기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백국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빠꾸기 사전 표기 요약	—	—	—	—	—	●→
씩씩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버꾸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백꾹이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벽국이**
18세기19세기20세기
- **빠꾸기**
20세기현재
- **쌩쑹이**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벽국이, 쌩쑹이, 버꾸기, 빠꾸기, 뽁꾹이

↳ **빠꾸기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빠꾸기’의 옛말인 ‘벽국이’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 말의 구성과 어원

‘벽국이’는 이 새의 울음소리 ‘벽국’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20세기까지 ‘벽국이’, ‘쌩쑹이’, ‘버꾸기’, ‘빠꾸기’, ‘뽁꾹이’ 등 여러 형태가 쓰이는데, 이 중 ‘쌩쑹이’, ‘뽁꾹이’는 ‘벽국이’의 제1음절 ‘ㅂ’이 된소리화된 ‘쌩’, ‘뽁’이 나타난 것이고, ‘버꾸기’, ‘빠꾸기’는 연철 표기된 것이다.

⇒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빠꾸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뽕꾸기

전체 용례 11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8세기 뽕꾸기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뽕꾸기

출처 1777 소아론신석 11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뽕꾸기는 목이 길모로 우름이 크니라.

현대어 풀이

뽕꾸기는 목이 길어 울음소리가 크니라.

출처 1790 몽어유해 하:29

용례 02

66 문헌 용례

可鵠 뽕꾸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뽕꾸기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뽕꾸기

출처 1865 흥부전 단:14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성황당 뽕꾸기 새야 너는 어이 우지느니.

현대어 풀이

성황당 뽕꾸기 새야 너는 어이 우짚느냐?

20세기 벽국이, 색국이, 버꾸기 외 2종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벽국이, 색국이, 버꾸기, 빠꾸기, 뽕국이

📖 출처 1927 동아일보 4월14일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단 한 마디 벽국이 소리 하늘로 오르자 쌍에는 봄이라고 우습이 터지네.

📖 현대어 풀이

단 한 마디 빠꾸기 소리 하늘로 오르자 땅에는 봄이라고 웃음이 터지네.

📖 출처 1929 조선일보 5월 2일 3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벽국이 놀다 갈 소나무 노픈 가지엔.

📖 현대어 풀이

빠꾸기 놀다 갈 소나무 높은 가지엔.

📖 출처 1929 조선일보 6월 28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그 산 너머 색국이.

📖 현대어 풀이

그 산 너머 빠꾸기.

📖 출처 1933 동아일보 11월 30일 3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낮에 우는 버꾸기, 밤에 우는 기러기.

📖 현대어 풀이

낮에 우는 빠꾸기, 밤에 우는 기러기.

출처 1935 동아일보 1월 30일:4면

용례 08

66 문헌 용례

山(산) 우의 뻘꾸기 소리 듣고 지난날의 幻影(환영) 날 에워싸아.

현대어 풀이

산 위의 뻘꾸기 소리 듣고 지난날의 환영 날 에워싸.

출처 1936 조선일보 1월 29일:7면

용례 09

66 문헌 용례

뻘꾸기가 운다. 까치가 짓는다.

현대어 풀이

뻘꾸기가 운다. 까치가 짖는다.

출처 1937 조선일보 1월 26일 5면

용례 10

66 문헌 용례

부형 사이 뻘꾸이 거튼 것두?

현대어 풀이

부영이 사이 뻘꾸이 같은 것도?

출처 1938 조선일보 12월 10일 5면

용례 11

66 문헌 용례

뻘꾸기 소리가 아련히 그들의 귀에 들리는가 할 지음.

현대어 풀이

뻘꾸기 소리가 아련히 그들의 귀에 들리는가 할 즈음.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벼꾸기 관련 낱말

벼꼭새

벼꾸기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벼꾸기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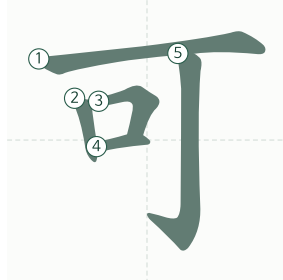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可

뜻·음 옮을 가

총 5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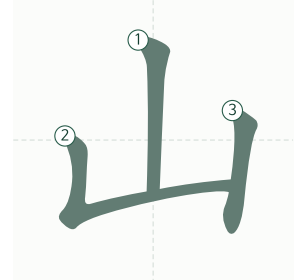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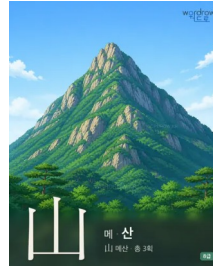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可/

山

뜻·음 메 산

총 3획 · 부수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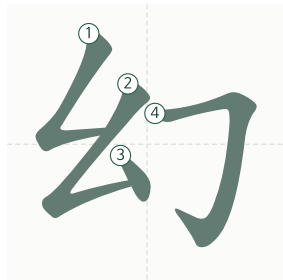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山/

幻

뜻·음 헛보일 환

총 4획 · 부수 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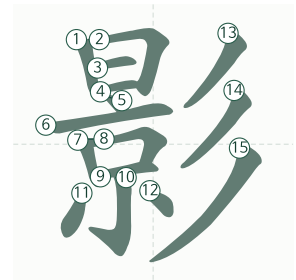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幻/

影

뜻·음 그림자 영

총 15획 · 부수 彡



hanja.wordrow.kr/한자/影/